

『삼국유사』의 찬술 기반

채 상 식*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게 된 배경과 기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료의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기초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연은 사서를 찬술할 정도로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불교를 비롯하여 유학과 제자백가에 능통하여 사서를 찬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특히 그는 사물을 대하는 치밀한 태도와 고증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둘째, 일연은 무엇보다도 남해에서 대장경 조판에 참여함으로써 폭넓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연은 당시 시대상황에서 무신세력과 몽고를 가장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시대정신이 싹트게 되었다.

셋째, 일연이 인흥사에 주석하면서 크게 고민한 것은 ‘민족’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민중들의 피폐된 삶을 개선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대응은 사서의 찬술과 관음신앙의 강조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흥사에서 일연이 제작한 『역대연표』는 사서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연표’의 기능을 하였다.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넷째, 일연은 고려사회의 내부 변화와 대외관계를 파악하면서, 국가·국왕 중심의 역사관과 단군으로부터 민족사의 체계를 정립하려고 하였다. 결국 일연은 궁극적으로는 고려를 再造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났다.

【주제어】

삼국유사, 일연, 고려대장경, 인흥사, 역대연표, 단군

목 차

I. 머리말	2. 자료 수집과 그 기반
II. 일연의 학문 경향과 시대인식	IV. 『삼국유사』 찬술의 의미와 독창성
III. 『삼국유사』 찬술의 기초 작업	IV. 맺음말
1. 『역대년표』의 제작	

I. 머리말

『삼국유사』는 적어도 일연이 충렬왕 7년(1281)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편찬한 史書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시기는 대개 70대 후반부터 84세로 입적하기까지 주로 만년이다. 『삼국유사』는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은 王曆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 등 9편목으로 되어 있다. 5권 9편목 144항목으로 구성된 『삼국유사』의 체제는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세 가지 고승전 체제에 유의하여 편목을 구성하였지만, 왕력·기이·피은·효선 등 중국 고승전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면모가 있다.

한편 『삼국유사』는 삼국의 역사 전반에 관한 사서로 편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성격에 대해서 불교사서, 설화집성집, 불교신앙을 포함하는 역사에 관한 문헌, 잡록적 사서, 야사 등 많은 견해들이 있다. 그렇다고漫錄 정도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찬자는 각고의 노력과 강한 역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물론 『삼국유사』가 신라 중심의 자료 수집과 서술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연이 광범위하게 수집한 古記·寺誌·금석문·고문서·사서·문집·승전 등의 자료는 『삼국유사』가 단순한 야사가 아니라 사서로서의 기본틀을 갖추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삼국유사』 기이편 서문에 神異를 강조하는 일연의 역사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연이 『삼국유사』 전편을 통해 강조한 신이는 민족 자주성과 문화의 우위성을 내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외세의 압박에 대항하여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자기 전통이라는 강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곧 몽고와의 30여 년에 걸친 항쟁의 소용돌이에서 민중들에게 민족자존의식과 현실구원적인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상적인 흐름이 일연으로 하여금 『삼국유사』를 저술하게 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는 물론 기본적으로 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불교의 내용과 관련시켜 보면, 선종 계통의 저술은 아니며 불교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¹⁾ 찬술한 것이다. 그러면 일연이 선종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 중 현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삼국유사』는 다른 저술에 비해 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불교 저술이 아닌 사서를 남긴 것은 일연이 원종 5년(1264) 인흥사로 옮겨간 시기의 시대상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대상황은 일연으로 하여금 선승이라는 본래의 면목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종파를 초월해 신앙 자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곧 『삼국유사』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찬술을 시도한 것이다.

앞서 『삼국유사』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언급하였지만, 학계에서는 정작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기반과 배경에 대한

1) 金煥泰, 1979, 『三國遺事 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동국대 출판부: 金相鉉, 1978,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韓國史研究』 20.

접근은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의 몇 가지 방향에서 『삼국유사』를 찬술할 수 있었던 기반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연이 선승이지만 역사서를 찬술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기반과 경향을 갖춘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저술 활동과 불교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 대한 식견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일연이 그가 생존했던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곧 고려사회 내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몽고와 30여 년에 걸친 전쟁을 거치면서 갖게 된 이민족에 대한 인식 등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이를 통해 일연이 역사서를 찬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그의 역사인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사서 찬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료 수집과 정리인데, 일연은 이러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에 기초 작업으로 만든 『역대년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삼국유사』의 체재와 찬술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곧 그것이 중국의 고승전을 단순히 모방한 것인지를 비교해 보고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삼국유사』 찬술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일연의 학문 경향과 시대인식

『삼국유사』를 접하면 일연이 과연 이러한 사서를 찬술할 만한 안목과 능력을 갖춘 인물인가가 궁금하다. 더욱이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한 수행을 우선으로 하는 선승이 이러한 사서를 찬술한 의도가 무엇이었던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일연이라는 개인의 학문적 경향과 능력이 사서를 찬술할 정도의 수준이었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일연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단순히 순응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시대적인 요청

에 깊은 고민을 하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선 일연이 가졌던 학문 경향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연비문」에는²⁾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자료 1>

1. 참선을 하는 여가에 다시 대장경을 읽고 여러 대가들의 章疏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유가의 서적을 두루 읽고, 제자백가를 다 관통하였다. 그리하여 장소에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하며, 妙用 곧 방편을 발휘함에도 거침이 없어서, 무릇 50년간 법도에 있으면서도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으며, 머무는 곳에 따라 모두 다투어 우러러 사모하였다.³⁾
2. 옛 사람들의 공안에 관한 語句와 뿌리와 마디가 얽힌 것과 소용돌이가 치는 물결처럼 글씨가 험하여 추측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어 소통시켜, 넉넉하고 여유있게 힘들이지 않고 전적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였다.⁴⁾
3. 오직 국사께서 세상에 출현한 것은 본래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함이다. 학문은 내외를 다 깊이 추구했으며, 이를 실천하기에 만 가지 방편으로 부응했다. 제자백가를 환히 알아서 깊은 이치와 현묘한 법을 찾았다. 많은 의문을 쫓겨어 풀어냄이 맑은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았다. 禪林에서는 법이 부르짖는 것이었고, 敎海에서는 용이 읊조리는 것이었다. 회오리바람이 일어 구름을 합치니, 학생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다.⁵⁾

위의 <자료 1-1>의 내용을 보면, 일연의 독서량과 독서의 범위가 대단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비문의 성격상 과장된 표현을 감안하더라도 일연이 수선하는 여가에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여러 대가들의 章疏를 접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에 비해 일연이 유학 서적을 두루 읽고 제자

2) 閔漬,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并序」는 「일연비문」으로 줄이기로 한다.

3) 「일연비문」, “又於禪悅之餘 再閱藏經 窮究諸家章疏 旁涉儒書 兼貫百家 而隨方利物 妙用縱橫 凡五十年間 爲法道稱首 隨所住處 皆爭景慕”.

4) 「일연비문」, “至古人之機緣語句 盤根錯節 渦旋波險處 扶剔疏鑿 恢恢焉遊刃 有餘”.

5) 「일연비문」, “惟師之出 本爲利他 學窮內外 機應萬差 曉了諸家 搜玄索妙 剖釋衆疑 如鏡所照 禪林虎嘯 敎海龍吟 颺起雲合 學侶駸駸”.

백가를 관통했다는 표현은 선승으로서의 독특할 수 있지만 그가 불교 이외의 전적에 관한 폭넓은 독서량과 박식한 학문세계를 의미한다.

<자료 1-2>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안을 담은 어록과 복잡하면서도 난삽한 글씨로 된 전적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일연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곧 “뿌리와 마디가 얽힌 것과 소용돌이가 치는 물결처럼 글씨가 험하여 추측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어 소통시켜”라는 표현은 일연이 사물을 대할 때와 어려운 전적류를 접했을 때 취하는 치밀한 태도와 고증하는 능력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연이 갖춘 고도의 실증 능력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 1-3>의 내용에서 <자료 1-1>과 마찬가지로 일연은 내외의 학문과 체자백가에 밝았으며, 불교의 선사상과 교학에도 종횡으로 널리 통달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구절은 “많은 의문을 쪼개어 풀어냄이 맑은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았다.”라고 한 것은 앞의 <자료 1-2>의 표현과 같이 치밀함과 고증을 중시하는 태도를 엿보이게 한다.

앞에서 지적한 점을 종합하면 일연은 사서를 찬술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 기본 학문을 충실하게 수학한 인물로 판단된다.⁶⁾ 특히 일연이 대장경 조판에 참여한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⁷⁾

앞에서 살핀 「일연비문」에서는 일연의 학문 기반과 태도를 집약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그 실상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일연이 남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인용한 서목이며, 또 하나는 일연이 남긴 저술과 편저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일연의 저술은 다음의 인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 蔡尙植, 2012, 「一然의 『重編曹洞五位』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지역과 역사』 30에서는 『중편조동오위』의 내용을 통해 일연이 문헌에 대한 고증과 주석에 밝은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또 『중편조동오위』에는 선종의 계보에 밝은 일연을 발견할 수 있다.

7) 『三國遺事』에는 대장경을 인용한 몇 사례가 보인다. 『三國遺事』 권3, 탑상4, ‘요동성육왕답’의 세주에 “具在若(右의 오)函”, 『三國遺事』 권3, 탑상4, ‘어산불영’에 “可函觀佛三昧經” 및 “星函西域記”, 『三國遺事』 권4, 의해5, ‘원광서학’의 세주에 “載達函” 및 “귀축제사”에 “廣函求法高僧傳” 등이다.

국사께서 지으신 것은, 어록 2권, 계송잡저 3권이 있다. 그가 편수한 것은 중편 조동오위 2권, 조과도 2권, 대장수지록 3권, 제송법수 7권, 조정사원 30권, 선문염송사원 30권 등 100여 권이 있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⁸⁾

일연이 직접 찬술한 것은 『어록』(2권)과 『계송잡저』(3권) 등이 있으며, 이에 비해 그가 편수한 것은 『중편조동오위』(2권)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일연의 저술과 편수한 것은 현전하지 않으며, 다만 『중편조동오위』만 현전한다. 현전하는 그것도 본래의 판본은 아니며, 일본 조동종에서 17세기에 간행한 것이다.

일연의 저술인 『어록』과 『계송잡저』 등은 선사상 관련 저술로 추정되며, 편수한 것은 선종 계통으로 『중편조동오위』, 『조과도』, 『조정사원』, 『선문염송사원』 등과 교종 계통으로 『대장수지록』, 『제송법수』 등이다. 이들 저술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내용 파악은 일연의 사상적인 특징을 살펴 보면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일연의 저술들을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은 찾을 수 있다. 첫째, 일연은 상당히 많은 양의 저술을 찬술하고 편수하였다. 둘째, 일연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승이면서도 선종뿐만 아니라 교학에 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졌다. 셋째, 일연이 편수한 것은 일종의 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것과 계보도와 같이 참고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편수한 것이 대부분이다. 넷째, 『중편조동오위』를 살펴보면 일연이 전거를 통하여 미비점을 철저히 고증하고 분석한 것이 ‘중편’한 내용이다.⁹⁾

결국 일연이 저술하고 편수한 것은 선종과 교종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폭넓은 사상적인 폭을 보여주지만, 다분히 참고용으로서의 성격이 엿보이며, 전거를 통한 보충과 고증을 내용으로 한 것이 주된 경향은 아닌가 한다. 『삼국유사』의 찬술에서 보이는 보충과 고증하는 태도는 앞의 저술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해 일연은 많은 자료를 전거로 삼았다.

8) 「일연비문」, “師之所著 有語錄二卷 偈頌雜著三卷 其所編修 有重編曹洞五位二卷 祖派圖二卷 大藏須知錄三卷 諸乘法數七卷 祖庭事苑三十卷 禪門拈頌事苑三十卷等百餘卷 行于世”.

9) 蔡尚植, 2012 참조.

그 인용서목은 방대하다.¹⁰⁾ 이들은 중국측 자료로는 유교경전을 비롯하여 사서, 제자백가 등과 불교경전과 고승전, 불교사전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측 자료는 『삼국사기』, 『삼국사』, 『삼국본사』, 『국사』, 『가락국기』 등의 사서와 고기류, 사지, 금석문, 각종 문서, 승전류, 원효를 비롯한 신라 승려들의 저술 등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義天이 찬술한 大文類(『新集圓宗文類』)를 인용하여 唐의 法藏 賢首가 의상에게 보낸 서신을 소개한 것이다.¹¹⁾ 이 서신은 현재 사본이 일본 天理大學에 소장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들 인용서들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참고하고 열람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연이 폭넓은 자료를 섭렵하고 고증, 저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일연이 20여 년 동안 비슬산에서 수행할 때를 상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도 1249년 정안이 남해 정림사에 일연을 초청함으로써 일연과 그의 문도들이 대장경 조판에 동참한 것이 가장 주목된다. 일연은 선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변방의 사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불교 전적을 비롯한 각 분야의 서책을 폭넓게 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해로 진출함으로써 아마 일연은 대장경 조판과 관련된 불교 전적뿐만 아니라 많은 서책을 열람했을 것이다. 국가적인 사업인 대장경 조성 작업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방대한 서책의 비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었더라도 사서를 편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다. 곧 사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확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남해에 초청받아 대장경 조성에 참여하였던 일연은 국내적으로는 최이가 죽고 그의 서자인 최항이 등장하는 무신세력의 실상을 접했을 것이며, 근 십수 년에 걸친 몽고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고려의 현실을 목도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연이 가장 비판적으로 본 것은 무신세력과 몽고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일연이 『삼국유사』의 찬술을 계획하고 구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무신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

10) 崔南善, 1946, 「三國遺事 解題」, 『新訂三國遺事』, 민중서관 참조.

11) 『三國遺事』 권4, 의해5, 義湘傳敎.

한 삼별초를 ‘賊難’으로 한 것과¹²⁾ 몽고군을 ‘西山大兵’이라 한 것은¹³⁾ 일연이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뒤에 『삼국유사』의 찬술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일연이 본격적으로 『삼국유사』의 찬술을 의도하고 기획한 시기는 적어도 일연이 인흥사에 주석한 이후였을 것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예비작업으로 『역대연표』를 만든 것과 연관될 것이다.

앞서 살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곧 일연은 선승이지만 사서를 찬술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기반과 성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가 불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유학서와 제자백가 등에도 밝은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과 『삼국유사』의 인용서목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은 일연이 남해 정림사로 초청받아 대장경 조판에 참여함으로써 크게 성장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 일연은 고려사회 내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몽고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갖게 된 이민족에 대한 인식 등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삼국유사』의 찬술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은 인흥사에 주석한 이후로 추정되지만, 이 시기에 일연으로서는 간접적이거나 역사서를 찬술하게 된 동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Ⅲ. 『삼국유사』 찬술의 기초 작업

1. 『역대연표』의 제작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연은 고종 36년(1249) 남해로 초청받아 대장경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던 인물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 뒤 고종 45년(1258) 유경, 김준 등이 연합하여 최의를 제거한 것을 계기로 하여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일연은 그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12) 『三國遺事』 권3, 탑상4, 前後所將舍利.

13) 『三國遺事』 권3, 탑상4, 迦葉佛宴坐石 및 三國遺事』 권3, 탑상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원종 즉위년(1259)에 일연은 대선사가 되고 2년 뒤 왕명에 따라 강화도 선월사로 초청받는다.

그러다가 일연은 남환하여 주로 경상도 지역의 유력 사찰을 주석하였으며, 원종 5년(1264) 왕명에 의해 인흥사에 주석하게 되었다. 여기서 일연은 사상적으로 크게 전환하게 되는데, 승려로서의 본분인 수행과 병행하여 신앙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신앙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당시 시대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몽고와 강화를 하게 되어 전쟁은 일단 종식되었으나 무신집권기와 대몽전쟁기를 거치면서도 귀족과 권신들은 어떤 형태이든 변신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수탈의 주된 대상이었던 농민과 천민들은 여전히 곤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화려하게 중앙 정치세력의 후원을 받게 된 일연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피폐된 민중들의 삶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에게 신앙적인 구원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서 일연은 이 시기에 특히 현세구원을 중시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일연이 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면서 현실적으로 그가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두 가지 방향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몽고와 전쟁을 치루면서 무너진 ‘민족’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이며,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농민과 천민들의 피폐된 삶을 개선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사서의 찬술과 관음신앙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이 사서의 편찬을 시도하면서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역대연표』의 제작이었다. 일반적으로 ‘연표’는 사서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흐름을 바르게 파악하고 참고하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이다. 충렬왕 4년(1278) 인흥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현재 해인사 사간관에 소장된 『역대연표』가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역대연표』의 내용과 간행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삼국유사』의 찬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⁴⁾

14) 蔡尙植, 1986,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邊太燮 編,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참조.

첫째, 『역대연표』는 충렬왕 즉위년(1274)~충렬왕 8년(1278)에 걸쳐 자료 수집과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다음의 내용에 근거한다.

1. 형태상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기재양식이 거의 일치한다.
2. 중국의 정통왕조로 파악한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3. 일연이 『역대연표』를 간행하기 1년 전에 인흥사에서 운문사로 옮겨갔지만, 『역대연표』를 간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간행처인 인흥사에서 14년간 주석했다.

둘째, 『역대연표』는 중국 정통왕조와 중국 주변민족에 의해 건립된 왕조들을 ‘旁峙諸國’으로 구분하여 이들 왕조에 대한 역대 왕명과 연호, 또 그 사용했수를 정리하고 이에 덧붙여 新羅, 高句麗, 百濟, 高麗의 순서로 당시까지 존재한 우리나라 역대 왕명과 그 재위년수를 밝히고 있다. 중국에 해당되는 내용은 광범위한 자료섭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특히 삼국의 경우는 『삼국사기』에만 의존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삼국유사』는 적어도 충렬왕 4년(1278) 이후에 찬술되었다.

셋째, 『역대연표』를 간행할 당시 인흥사를 중심으로 하여 판각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집단이 일연의 문도들로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1250년대 전후에 일연과 그의 문도들이 남해분사의 대장경 조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서 인흥사를 중심으로 하여 활약한 禪叟이 주목된다.

넷째, 『역대연표』가 간행된 사상적 배경은 당시 인흥사에서 간행된 불서류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현재로서는 13세기 후반에 『法華經普門品』, 『大悲心陀羅尼經』, 『人天寶鑑』 등이 인흥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역대연표』보다 3년 전에 간행된 『보문품』이 당시의 사상적 경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주목하였다. 『보문품』은 『역대연표』보다 15년 뒤에 간행된 『대비심다라니경』과 더불어 실천적·현세구원적 관음 신앙을 표방하는 대표적 경전이다. 『보문품』에 덧붙여 ‘六字大明眞言’을 함께 수록하여 밀교적인 다라니신앙까지도 포괄하는 경전을 인흥사에서 간행

했다는 사실은 일연의 사상적 경향이 선사상 일변도에서 실천적·현세적 신앙을 표방하는 방향으로 경도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일연이 만년에 접한 『인천보감』을 두고서 그의 제자인 선린에게 간행토록 부탁하는 내용을 접하면, 『인천보감』의 내용이 궁급해진다. 『인천보감』은 南宋의 曇秀禪師가 편찬한 것이지만 교훈과 설화를 통해 서민대중들에게 접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일연의 사상적 경향이 방향을 전환한 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연이 왕정복고를 주도한 정치세력에 의해 부각된 이후, 그는 무신세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는 그가 청·장년기를 열악한 사정에 처해 있던 지방의 사찰에 머물면서 평소에 가졌던 현실인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연은 무신권력층에게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던 농민과 천민들의 처지를 깊이 인식하였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현실적 차원에서의 구원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천적·현세구원적 성격을 띤 불교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연이 대몽항쟁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엿보이지만 농민과 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해서는 극히 비판적이었다. 이는 민족적 위기감과 대응의식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결국 실천적·현실적 성격을 띤 관음신앙과 밀교의 다라니신앙, 교훈적이면서 계몽적인 성격을 띤 일연의 사상적 편향은 현실인식의 산물이며, 이는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찬술로 연결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과 『역대연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대연표』는 왕력을 편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삼국유사』의 찬술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완성된 왕력과 『역대연표』는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역대연표』의 존재를 몰랐던 최남선이 “왕력은 崔致遠의 『帝王年代曆』을 節酌하여 만들고 그 書名을 略用까지 한 듯하다.”라고¹⁵⁾ 밝힌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를 답습해 왔다. 그러나 본 『역대연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설득력은 부족하다. 물론 일연이 『제왕연대력』을 참고한 흔적이 『삼국유사』에 보이긴 하지만,¹⁶⁾ 일연의 당대까지

15) 崔南善, 앞의 해제, 23쪽.

를 기준으로 한 『역대연표』의 내용과 또 『역대연표』가 『제왕연대력』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으로¹⁷⁾ 미루어 보더라도, 『삼국유사』 왕력 편은 『제왕연대력』에만 의존하여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상 『삼국유사』 왕력과 『역대연표』가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양자의 관련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역대연표』가 어떤 용도로 제작된 것인지를 감안하지 않은 단견이다. 곧 『역대연표』는 사서 편찬을 위한 도구라는 측면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2. 자료 수집과 그 기반

앞서 『삼국유사』의 찬술을 위해 ‘연표’의 제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표’는 이전의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자료를 다루는 고도의 훈련이 부족하면 쉽게 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연의 문도 중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인물들이 동참했을 가능성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는 과연 일연이 단독으로 찬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가 대표 집필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연의 단독 찬술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갖는 시각의 이면에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승려가 하나의 ‘餘業’과 ‘한가로운 일’로서 찬술한 것이 『삼국유사』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일연을 필두로 한 그의 문도들이 담대한 기획과 역사의식을 갖고 찬술한 것이다. 단순히 개인이 단독으로 ‘여업’으로 만들 기에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학계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필자가 근 30여 년 전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시하였다. 현 학계에서는 별 의심없이 일연 단독의 찬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권5의 첫머리에만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

16) 『三國遺事』 권1, 기이2, 第二南解王.

17) 현 학계에서는 『三國遺事』 王曆이 『帝王年代曆』에만 전적으로 의거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李基白, 1985,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 『歷史學報』107 및 金相鉉, 1985,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 『東洋學』15.

鏡¹⁸⁾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하여 일연 찬술이라는 기록이 보일 뿐 그의 저술을 소개한 「일연비문」을 비롯한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흥사에서 『역대연표』를 만든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한 일연과 그의 문도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산물이 『삼국유사』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일연이 선승으로서 몇 십 년 동안 『삼국유사』를 목표로 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일연은 수행승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 수집에 관심을 갖고 보낸 많은 세월과 원고 집필 시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¹⁹⁾ 경청할 만하다. 따라서 논란이 많지만 일연이 자료 수집과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인흥사에서 '연표' 제작에 나선 이후, 운문사에 머물 때부터(1281년, 76세) 원고 집필을 시작하여 그가 인각사에서 만년을 보낸 시기(1289년, 84세)에 마무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료 수집과 관련하여 일연이 평생 정진하면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본다든가,²⁰⁾ 일연이 설악산 진전사를 떠나기 전인 23세부터 50여 년에 걸쳐 사료 수집을 했다는 견해는²¹⁾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일연비문」에는 일연이 선승이었지만 “修禪하는 여가에 다시 대장경을 읽고 諸家の 章疏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한편 儒書를 섭렵하고 아울러 百家書에도 관통하였다.”라고 한 것과 “禪林과 教海를 모두 삼켰다.”는 기록을 볼 때, 그는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훌륭하게 갖춘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서 찬술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선승으로 볼 때 역사서 찬술은 궁극의 길이기보다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다만 『삼국유사』는 대몽항전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모순이 극대화되어 가는 현실을 접하면서 이를 계기로 평소 워낙 '博聞強記'

18) 「일연비문」에는 '鏡'이 '徑'으로 되어 있다.

19) 金相鉉, 2003, 「三國遺事論」, 『강좌 한국고대사』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42~246쪽.

20) 閔泳珪, 1969, 「三國遺事解題」,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월호 부록.

21) 鄭求福, 1986,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考察』,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쪽; 2014, 『韓國中世史學史(I)』, 집문당, 333~334쪽.

한 성품이 작용하여 『삼국유사』를 찬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일연은 인흥사에 머문 이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서 『삼국유사』를 목표로 하여, 물론 경상도 지역이 중심이긴 했지만 이전에 수행 과정에서 접했던 관련 자료를 기억하고, 여기에 이미 불교계의 중심 교단이 된 가지산문의 판도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인용서목이 주목된다. 『삼국유사』에는 일연이 직접 머물거나, 행적을 남긴 사찰 등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삼국유사』는 크게 왕력을 포함한 기이(권1,2)와 흥법(권3~5) 이하로 대별된다. 여기서 전자는 주로 전적과 사서 등의 기록물을 참고한 것이 대세이다. 여기에 비해 후자는 고승전을 비롯한 간행된 전적 자료가 주를 이루지만 주목되는 것은 현장감 있는 자료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현장감 있는 자료는 직접 답사하여 수습한 문서류와 금석문, 傳聞에 바탕하여 수습한 자료, 이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연이 직접 수집한 것도 있고, 그의 문도들이 담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연이 불교계에서 부상한 이후 그의 영향권 내에 있는 문도들과 가지산문의 소속 사찰을 동원하였을 가능성이 컸다는 사실이다. 물론 가지산문이 아닌 다른 종파라 하더라도 일연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 현장감 있는 자료들은 일연이 주석했거나 인연이 깊었던 곳의 기록일 것이다. 예를 들면 비슬산 주변의 기록과²²⁾ 운문사 관련 자료,²³⁾ 오어사에 주석하면서 수습한 기록²⁴⁾ 그리고 경주 일대의 자료가 비교적 많은 것은 일연이 주석했거나 가지산문의 중심지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경주가 신라의 도성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일연 만년의 단월에는 경상도와 경주의 지방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을 벗어난 곳에 소재한 문서류와 금석문 등의 자료는 가지산문의 기반을 활용하거나 다른 종파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관한 사례는 경주와 마찬가지로 『

22) 『三國遺事』 권5, 피은8, 包山二聖.

23) 『三國遺事』 권4, 의해5, 寶壤梨木.

24) 『三國遺事』 권4, 의해5, 二惠同塵.

삼국유사』에 대단히 많다.

물론 『삼국유사』에 일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예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만년의 일연으로서 방대한 자료 수집과 집필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의 문도들과 함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민하면서 그는 젊은 시절에 그가 접한 자료와 이와 관련된 기억과 傳聞을 참고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불교계를 통괄하던 가지산문의 기반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물론 일연이 주축이 되었지만 그의 단독 찬술이라기보다 그의 문도들이 참여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삼국유사』가 관찬이 아니면서도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내용의 충실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일연을 정점으로 가지산문이 불교계의 중심 교단으로 부각된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연표』의 성격이 포교를 위한 유포용이라기보다는 찬술에 참여한 인물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연표’로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많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가지산문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 세력으로서 몇 개의 사원만을 관할하던 단계에 비해, 13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그 세력이 확산되어 많은 사원을 관할할 정도로 불교계의 중추 교단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아진다.

IV. 『삼국유사』 찬술의 의미와 독창성

『삼국유사』 찬술이 갖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한 동기와 의도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곧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삼국유사』가 사서로서 갖는 체제, 구성, 인용서목, 서술태도, 자료적 가치 등을 밝혀야 한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한 직접적인 동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연

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서를 찬술할 만한 시대적인 요청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연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은거하면서 수행에만 전념하던 비슬산 생활을 떠나 남해 정림사로 초청받아 진출한 것이 그의 삶에 큰 전환이 되었다. 남해에서 일연은 그의 문도들과 함께 대장경 조성사업의 막바지에 참여하였고, 그때 몽고군이라는 이민족과 항전 중인 상황을 목도하였다. 이러한 이민족과의 항전은 고려가 항복함에 따라 그들에게 예속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연은 이러한 사정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면서, 당시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그로서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모색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⁵⁾ 그가 택한 것은 바로 『삼국유사』의 찬술이었다.

『삼국유사』는 일반적인 역사 서술인 왕력과 기이편, 그리고 불교사에 관한 서술인 흥법과 그 이하의 편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삼국유사』 왕력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기이편과 나머지 흥법 이하를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는 기이편은 시대순으로 편찬된 반면, 나머지는 주제별로 편찬되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²⁶⁾ 어쨌든 『삼국유사』는 기이편까지의 일반사와 흥법편 이하의 불교사를 동시에 서술한 사서로 평가하기도 한다.²⁷⁾ 또 『삼국유사』를 불교(문화)사로 파악하여 왕력·기이 등의 항목에서 서술하고 있는 일반사를 ‘서설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²⁸⁾ 그러나 『삼국유사』에 불교관계 기사가 많이 수록되었다고 하여 불교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기이편의 분량만 해도 전체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계에서는 대체로 『삼국유사』의 내용을 두고 일반사와 불교

25) 당시의 왕정복고는 고려가 몽고에게 항복한 것을 의미하지만, 왕정복고를 지지하는 일연 으로서는 정치·사회 변동기를 맞이하여 사상적으로 나름의 대응을 하였다.

26) 金文泰, 1989, 「三國遺事의 體裁와 性格——然의 編纂意圖와 관련하여」, 『陶南學報』 12, 73쪽.

27) 李基白, 1973,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震檀學報』 36 및 金泰永, 1974,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慶熙史學』 5; 李佑成·姜萬吉 편, 1976 『韓國의 歷史認識』 (上), 창작과 비평사.

28) 金煥泰, 1974, 「三國遺事의 體裁와 그 性格」, 『論文集』 13, 동국대학교, 17쪽 및 閔泳珪, 1973, 「一然의 禪佛教」, 『震檀學報』 36, 157쪽.

사를 함께 서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용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일연이 승려라는 선입견도 작용한 측면도 엿보인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눈 의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단순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나름의 찬술의 목표를 갖고 나눈 것이다.

일연은 기이편을 통해서 대외모순에 빠진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고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연은 기이편의 첫 머리에 ‘聖人’의 출현은 신이한 것이며, 삼국의 시조들은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²⁹⁾ 표방하고 있다. 이는 조선을 개국한 단군왕검을 중국의 堯와 같은 시기의 인물임을 밝혀³⁰⁾ 조선과 중국이 대등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³¹⁾

이에 비해 흥법 이하 탐상의해·신주감통·피은·효선 등을 통해서 무신집권기에서 몽고와의 전쟁기, 원간섭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농민과 천민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사서의 틀을 세우기 위해 불교 고승의 행적과 불교 교학을 밝히고, 불교의 탐상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신주감통·효선 등의 편목은 신앙심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밝히려는 의도를 갖고 설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이와 흥법 이하의 편목은 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별개로 인식할 것이 아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대외적인 위기인 민족모순과 농민과 천민의 피폐된 상황인 계급모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³²⁾ 찬술한 『삼국유사』는 체재와 구성은 구분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반에서 출발하였다. 곧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각 편목은 구분되어 있으나 서로 연관된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일연의 시대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

29) 『三國遺事』 권1, 기이1, ‘叙曰’.

30) 『三國遺事』 권1, 기이1, 古朝鮮.

31) 李載浩, 1983, 「三國遺事に 나타난 自主意識 - 특히 그 體裁와 義例에 대하여」, 『三國遺事研究』(上), 영남대 출판부.

32) 金泰永, 1974, 139~143쪽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다.

기로 한다. 일연은 고려사회 내부의 변화와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삼국유사』에 국가, 국왕 중심의 역사관을 표방하며,³³⁾ 권신을 비판하는 내용과 단군으로부터 민족사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태도를³⁴⁾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일연은 궁극적으로는 고려를 再造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활용한 측면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찬술 의미와 연관하여 『삼국유사』의 찬술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삼국유사』 체재를 통해서 부분적이거나 접근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최남선이 언급한 “『삼국유사』는 승려인 일연이 여가를 이용하여 큰 고민 없이 기왕의 사서와 고승전 등을 단순히 모방하여 찬술한”³⁵⁾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는 王曆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 등 9편목으로 나누고 전체를 5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체재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중국 세 고승전의 체재를 따른 것이라는³⁶⁾ 견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중국측 승전들은 『梁高僧傳』·『唐續高僧傳』·『宋高僧傳』·『求法高僧傳』·『三寶感通錄』·『法苑珠林』 등이 보인다. 따라서 일연이 중국측 고승전의 체재를 참고한 것은 분명하며, 『삼국유사』의 편목은 10과로 내용을 나누어 서술한 梁唐宋 세 고승전의 체재를 따른 것이라는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의 세 고승전의 편목과 『삼국유사』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梁高僧傳』: 譯經, 義解, 神異, 習禪, 明律, 遺身, 誦經, 興福, 經師, 唱導

33) 李基白, 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 창간호,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5,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 『歷史學報』 107에 의하면 「三國遺事」 왕력기이편은 다분히 국가, 국왕 중심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일연이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1260년대 전후에 부각된 인물임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34) 『三國遺事』 권1, 기이2, 古朝鮮.

35) 崔南善, 앞의 해제, 48쪽.

36) 閔泳珪, 1969, 『新東亞』 1월호 부록, 88쪽.

『唐高僧傳』: 譯經, 義解, 習禪, 明律, 護法, 感通, 遺身, 讀誦, 興福, 雜科
 『宋高僧傳』: 譯經, 義解, 習禪, 明律, 護法, 感通, 遺身, 讀誦, 興福, 雜果
 『三國遺事』: 王曆, 紀異, 興法, 塔像,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

중국 세 고승전의 편목은 그 순서나 표현상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10과로 분류한 특징이 있다.³⁷⁾ 이러한 세 고승전의 체재를 『삼국유사』가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세 고승전은 모두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왕력 및 기이편이 전체 분량의 약 반에 해당하고, 비록 흥법편 이하의 후반부가 거의 불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결코 고승들의 전기만을 쓴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삼국유사』가 세 고승전과 내용상 방향을 달리 하고 있는데, 세 고승전의 체재를 그대로 답습해서 편목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의해, 감통 등의 편목으로 보아 세 고승전을 참고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왕력·기이·피은·효선 등은 중국 고승전에는 없는 편명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체제가 중국 세 고승전의 체재를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한 김상현 교수의 견해는³⁸⁾ 대체로 경청할 만하다. 여기서 특히 중국 세 고승전은 고승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기를 내용으로 하는 제목 그대로 ‘고승전’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내용과 성격상 세 고승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삼국유사』는 사서이다.

결국 『삼국유사』의 체제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삼국유사』의 체제는 다른 사서에 비해서 보기 드문 것이고, 비록 중국 고승전과 사서 등을 참고는 했지만 일연은 나름의 목표와 의도를 갖고 독창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곧 『삼국유사』는 왕력과 기이는 역사, 나머지는 불교 교학과 신앙을 중심으로 찬술한 것이다. 특히 왕력·기이·피은·효선 등은 중국 고승전 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다.

37) 金相鉉, 2005, 「三國遺事의 體裁와 篇目 構成」, 『三國遺事研究』 창간호, 227쪽에는 『海東高僧傳』은 이들 고승전의 체재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38) 金相鉉, 2005, 226~228쪽.

V. 맺음말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게 된 배경과 기반에 대한 연구성과는 대체로 거시사적인 시각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관한 관련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다양한 성격을 띤 『삼국유사』의 성격상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촘촘하게 관찰하면 『삼국유사』의 찬술 기반에 대한 기초적인 측면은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도한 글이다. 앞서 살핀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는 방향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첫째, 일연은 사서를 찬술할 정도로 학문적 경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일연은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여러 장소까지도 통달한 인물이다. 이는 더 나아가 일연은 유학 서적을 두루 읽고 제자백가에 관통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불교 이외의 전적에 관한 독서량과 여러 학문에 박식하였다. 또 일연은 사물을 대하는 치밀한 태도와 고증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는 그를 가리켜 “뿌리와 마디가 얽힌 것과 소용돌이가 치는 물결처럼 글씨가 험하여 추측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어 소통시켜”라는 한 것과 “많은 의문을 쪼개어 풀어냄이 맑은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았다.”라고 한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일연은 사서를 찬술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 기본 학문을 충실하게 수학한 인물로 판단된다.

둘째, 일연이 폭넓은 자료를 섭렵하고 저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일연을 남해 정립사에 초청함으로써 일연과 그의 문도들이 대장경 조판에 동참한 것이 가장 주목된다. 남해로 진출함으로써 일연은 대장경 조판과 관련된 불교 전적뿐만 아니라 많은 서책을 열람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서의 편찬은 시대정신이 확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도 남해에 초청받아 대장경 조성에 참여한 일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본 것은 무신세력과 몽고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인식이 『삼국유사』의 찬술에 영향을 주었다. 일연이 본격적으로 『삼국유사』의 찬술을 의도하고 기획한 시기는 적어도 그가 인흥사에 주석한 이후였을 것이다.

셋째, 일연은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

가 일연은 원종 5년(1264) 왕명에 의해 인흥사에 주석하게 된다. 여기서 일연이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몽고와 전쟁을 치루면서 ‘민족’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이며, 농민과 천민들의 피폐된 삶을 개선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서를 찬술하고 신앙적으로 관음신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연이 먼저 착수한 것은 바로 『역대연표』의 제작이었다. ‘연표’는 사서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흐름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이다.

한편 『삼국유사』의 인용서목을 보면, 일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이 많지만 만년의 일연으로서 방대한 자료 수집과 집필은 어려움이 많이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물론 일연이 주축이 되었지만 그의 단독 찬술이라기보다 그의 문도들이 참여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국유사』가 관찬이 아니면서도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내용의 충실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일연을 정점으로 가지산문이 불교계의 중심 교단으로 부각된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일연은 고려사회 내부의 변화와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삼국유사』에 국가, 국왕 중심의 역사관으로 권신을 비판하는 내용과 단군으로부터 민족사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일연은 궁극적으로는 고려를 再造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체제는 다른 사서에 비해서 보기 드문 것이다. 비록 중국 고승전과 사서 등을 참고는 했지만 일연은 나름의 목표와 의도를 갖고 독창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삼국유사』는 왕력과 기이신 역사, 나머지는 불교 교학과 신앙을 중심으로 찬술된 사서였으며, 특히 왕력기이피은효선 등은 독창적인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그 성격을 野史, 설화민담집, 하나의 漫錄, 불교(문화)사 등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논문투고 : 2017. 5. 15, 논문심사완료 : 2017. 6. 16, 게재확정 : 2017. 6. 20

[참고문헌]

『三國遺事』

『歷代年表』

閔漬,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并序」

金文泰, 1989, 「三國遺事の體裁와 性格——一然의 編纂意圖와 관련하여」, 『陶南學報』 12.

金相鉉, 1978,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韓國史研究』 20.

金相鉉, 1985,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 『東洋學』 15.

金相鉉, 2003, 「三國遺事論」, 『강좌 한국고대사』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金相鉉, 2005, 「三國遺事の體裁와 篇目 構成」, 『三國遺事研究』 창간호.

金煥泰, 1974, 「三國遺事の體裁와 그 性格」, 『論文集』 13, 동국대학교.

金煥泰, 1979, 『三國遺事 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신흥출판사.

金泰永, 1974, 「三國遺事に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慶熙史學』 5.

閔泳珪, 1969, 「三國遺事解題」,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월호 부록.

閔泳珪, 1973, 「一然의 禪佛敎」, 『震檀學報』 36.

李基白, 1973,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震檀學報』 36.

李基白, 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 창간호,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李基白, 1985,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 『歷史學報』 107.

李佑成·姜萬吉 편, 1976, 『韓國의 歷史認識』 (上), 창작과 비평사.

李載浩, 1983, 「三國遺事に 나타난 自主意識 —특히 그 體裁와 義例에 대하여」,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 출판부.

鄭求福, 1986,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考察』,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鄭求福, 2014, 『韓國中世史學史(I)』, 집문당.

蔡尙植, 1986,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 와 『三國遺事』」, 邊太燮 편,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蔡尙植, 2012, 「一然의 『重編曹洞五位』 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지역과 역사』 30.

崔南善, 1946, 「三國遺事 解題」, 『新訂三國遺事』, 민중서관.

[Abstrac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Samgukyusa*

Chae, Sang-sik

This paper survey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Iryeon's *Saungukyusa*. A variety of factors and circumstances in which he set out to do the project is deduced from the detailed examin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Firstly, with his susceptibility to elaborate research Iryeon's profound knowledge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all kinds of ancient Chinese philosophy qualified him to take on the historical works.

Secondly, the production of the *Goryeo Tripitaka* in which Iryeon involved himself while he was staying in Namhae enabled him to gain access to historical materials. His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Goryeo military regime and Mongols marked his worldview as a whole.

Thirdly, during his sojourn in Inheungsa Iryeon was deeply concerned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concept of 'nation' and aggravated living conditions which the Goryeo people had encountered. This spurred him on to the publication of his historical work and provoked the belief in Avalokitesvara. And *Yeokdaeyeonpyo* that produced by Iryeon in Inheungsa performed a function of a 'chronological table' in the compilation of historical works.

Lastly, while seeing changes both in Goryeo society and it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oyal-national historiography in which national origin was traced back to the legend of Dangun provided a key framework for his historical study. Based on this narrative, he expressed the hope for rebuilding Goryeo. This was manifest in his *Samgukyusa*.

Keywords: *Samgukyusa*, Iryeon, *Goryeo Tripitaka*, Inheungsa, *Yeokdaeyeonpyo*, Dangun